

'특급한식 + 오거스타 같은 코스' 최고였어!

(오거스타 내셔널 GC)

넓은 티샷 공간·크고 경사 진 그린 필 미켈슨 "마스터스 코스 보듯" 플레이어라운지는 최고 맛집 명성

대한민국 하나뿐인 PGA 투어 정규 대회인 'THE CJ CUP @ NINE BRIDGES(이하 더 CJ컵)'이 20일 저스틴 토마스의 우승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더 CJ컵'은 우승자 저스틴 토마스 뿐만 아니라 필 미켈슨, 조던 스피스, 브룩스 켈카, 임성재 등 PGA 투어를 대표하는 주요 선수들이 대거 참가했다. 4만 6000여 갤러리가 대회장을 찾는 등 한창 높아진 대회 위상을 느낄 수 있었다.

'더 CJ컵'은 매년 출전 선수 라인업이 강화되면서 PGA 투어 주요 선수들이 반드시 참가하고 싶어 하는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에는 페덱스컵 순위 상위 10명 중 4명이 제주를 찾았고, 지난 시즌 대회 우승자 중 22명이 대회에 참가했다. 타이 보타우 PGA 투어 국제부문 사장은 "한국 팬들의 골프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음식, 호텔 등 선수들이 대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CJ그룹의 노력이 최고 선수들을 '더 CJ컵'에 모을 수 있는 이유이다"라고 말했다.

●PGA 투어 선수들의 '더 CJ컵' 극찬

선수들의 식사가 제공되는 플레이어라운지는 선수들 사이에서 투어 최고의



더 CJ컵 갈라 디너에 함께 한 조던 스피스, 저스틴 토마스, 필 미켈슨, 이안 풀터, 브룩스 켈카(왼쪽부터).

사진제공 | CJ그룹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더 CJ컵'만의 매력 포인트로 부상했다. 강성훈은 "해외 토너먼트에서 만난 선수들이 '더 CJ컵'의 플레이어라운지 얘기를 할 정도로 유명하다"라고 할 만큼 CJ그룹은 메뉴 선정부터 조리까지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외국 선수들이 선호하는 한식 등 50여 가지의 메뉴를 즉석에서 조리해 제공했다.

최고 수준의 코스 상태에 대해서도 극찬이 이어졌다. PGA 투어에서만 44세를 거두며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필 미켈슨은 올해 처음 '더 CJ컵' 무대를 밟았다. 미켈슨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골프 코스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다. 티

샷 할 때 공간이 넉넉한 데다 그린이크고 경사까지 있어 마스터스가 열리는 오거스타 내셔널 GC를 보는 것 같다"고 칭찬했다. 개리 우드랜드 역시 "전장이 길어 장타자에게 유리하고, 바람에 따라 코스 난이도가 달라지며 18번 홀은 이글을 노리는 등 흥미진진한 코스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더 CJ컵'에서는 임성재, 강성훈, 김시우, 안병훈 등 PGA 투어에서 맹활약 중인 선수뿐만 아니라 문경준, 이수민, 함정우 등 KPGA를 대표하는 선수들과 아마추어 배용준까지 총 16명의 한국 선수들이 참가해 꿈의 PGA 투어 무대를 밟았다. 한국 골프 꿈나무들을

위한 이벤트도 열었다.

골프를 좋아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한 브릿지 키즈에는 약 300여명이 지원했으며 700여명이 넘는 영상이 SNS에 업로드돼 화제를 모았다. 최종 선발된 30명의 꿈나무들은 타이 플릿우드와 최경주를 만나 골프 클리닉에 참여하고 대회 1라운드를 관람했다.

CJ그룹 관계자는 "더 CJ컵은 3년밖에 되지 않은 역사가 짧은 대회이지만 CJ그룹만의 차별화 전략으로 PGA 투어 선수 및 갤러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내년에는 더욱 수준 높은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허보람 객원기자 hughandong@naver.com

알고보면 더 재밌는 축구지표 득점 기대값 'xG'를 아시나요

빅데이터 시스템의 발달로 축구 기록도 발전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로 'xG'라는 수치다.

xG는 'expected goals'의 준말로 해석하자면 득점 기대 값이다. 슈팅별로 골이 들어갈 확률을 계산해 값으로 산출해낸 것이다. 확률은 여러 조건에 따라 좌우된다.

xG를 측정하는 컴퓨터는 매 슈팅마다 0부터 1까지 값을 매긴다. 0에 가까울수록 득점하기 어려운 슈팅이고 1에 가까울수록 득점하기 쉬운 슈팅이다. 흔히 경기가 끝나면 팀이나 선수에 대한 xG값이 공개된다. 그 값은 특정 팀이나 선수가 기록한 슈팅들의 xG값을 모두 합한 수치다.

xG는 실제 득점과 비교해야 진가가 발휘된다. 만약 xG값이 실제 득점 수보다 낮다면 찬스를 잘 살렸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반대의 경우에는 골 결정력이 좋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상적인 9번'으로 평가받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의 기록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그는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33경기에 출장해 22골을 기록하며 득점왕을 차지했다. 그러나 33.14의 xG값을 기록해 결정력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xG는 가장 정확하게 득점력을 판단할 수 있는 수치로 여겨지지만, 고려하지 못하는 변수 역시 존재한다. 바로 골키퍼의 기량이다. 조현우와 조기축구회 아저씨가 지키는 골문은 분명 다르다. xG의 허점은 여기에 있다. 서경석 명예기자(생명대 생명과학 전공)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LoL 10주년...게임 이상의 가치 실현한 라이엇게임즈

라이엇게임즈가 바라보는 게임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다. 이들은 게임이 사람들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됐다고 믿는다.

"이 게임은 단순한 게임 이상이 됐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이하 LoL) 10주년 기념 특별 생방송 중 공개된 영상에서 조 토틀 LoL 리드 프로듀서는 LoL이 게임 이상의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말은 라이엇게임즈가 자신들이 만든 게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여줬다. 그들은 게임의 영향력을 온라인에 한정 짓지 않았다.

라이엇게임즈가 현실세계에 펼친 가장 큰 꿈은 바로 e스포츠다. 지난해 펼쳐졌던 '2018 LoL 월드챔피언십 결승전'은 전 세계에서 9960만 명에 달하는 시청자들이 지켜봤을 정도로 다른 e스포츠 종목들보다 월등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e스포츠 부문 시범 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정식 스포츠로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라이엇게임즈는 게임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도 많은 관심이 있

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챔피언업 에쉬', '암흑의 별 초가스' 스킨 판매 수익을 통해 총 800만 달러의 금액을 자선단체에 전달했다.

'암흑의 별 초가스' 스킨은 LoL을 즐겨온 암 투병 소년 브라이언과 함께 제작한 스킨이라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국내에서는 2012년부터 한국 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활동을 해오고 있다. 2014년 1월, 일제 강점기에 반출된 것으로 알려진 '석가삼존도의 반환 비용 일체를' 신비랍 탈



사코' 스킨 판매 수익을 통해 지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7년 12월에 열린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 시상식'에서는 외국계 기업 최초로 대통령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서경석 명예기자(생명대 생명과학 전공)

tjalstjr791@naver.com

RIVADI 리바디 COMFORT SHOES

"비교할 수 없는 편안함"



모델명 리바디-A (블랙) 리바디-B (다크브라운) 재질: 천연소가죽

2019 정통 유럽브랜드 "리바디" 정식런칭

소프트한 천연소가죽 외피, 완벽한 통풍, 강력한 미끄럼방지, 유럽풍 디자인

정통 유럽 브랜드 리바디가 새로운 감각의 컴퍼트화를 출시하였다. 부드러운 외피와 완벽한 통풍성에 강력한 미끄럼 방지 기능을 탑재한 컴퍼트화다. 기존의 신사화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한 내구성을 겸비하였고 디자인 또한 유럽풍으로 세련되고 수려하다. 극단적으로 부드러운 외피는 발을 부드럽게 감싸주어 신은 듯 안 신은 듯 발에 감기는 착화감이 압권이다. 새로운 신발은 발에 잘 맞지 않아 열마간 신어야 비로소 발에 맞춰지지만 리바디 컴퍼트화는 처음 신는 사람도 오랜 시간 신는 신발처럼 발에 잘 맞는다. 유럽풍 디자인은 어떤 복장에도 잘 어울리며 다크 브라운

불편한 신발 때문에 고민이라면 발이 편한 리바디가 최선입니다!

운의 외피 색상은 중후하고 우아한 패션감을 만들어 준다.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것이 리바디의 장점이다. 리바디 컴퍼트화는 내구성이 뛰어나서 기존의 제품들과는 완벽하게 차별된다. 밑창과 외피로 이어지는 부분은 꼼꼼한 손바느질로 강력하게 연결되어 파손이나 훼손의 염려가 없어 장기간 신을 수 있다. 또한 밑창은 잘 닳아지지 않는 특수 러버창을 채택하여 빗길이나 눈길에서도 미끄럼없는 안전한 보행을 만들어 준다. 강력한 밑창은 과격한 움직임이나 거친 장소에서 보행을 할 경우에도 발을 보호해 주고 충격을 완화시켜준다. 리바디 컴퍼트화는 발의 모양이 좋지 않아 기성화를 신기 힘든 분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부드러운 외피는 발의 모양대로 감싸주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족형에도 마치 맞춤화처럼 잘 맞아 발이 불편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발이 편한 리바디 컴퍼트화는 장시간 보행을 하여도 발이 피곤하지 않고 발이 편해 일상화에서 작업과 및 여행, 야외활동

기준가: 138,000원
파격가: 49,800원 (택배비 무료배송)
사이즈 245 / 250 / 255 / 260 / 265 / 270 / 275 mm

제품 하차시 6개월 무상 A/S 보장

NAVER 72448이 진수테크소평 뉴저지서

제품구입문의: 1566-1788 (주말, 공휴일 주문가능)
입금계좌: 우리은행 / 1005-301-396749 (주진수테크)
인터넷주문: www.j1234.co.kr